

# 아시아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협력단, 인도네시아 방문

글 · 김 신 skim1971@gmail.com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란 주제로 한국과 아시아가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활동가와 학계전문가로 교류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태일 평전』의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출간에 맞추어 기획되었는데 지난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이슬람법 수립을 포함해 자치권을 획득한 수마트라 섬 최 북부의 아체주를 방문한 후 수도 자카르타로 이동하여 현지와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인도네시아의 현 상황

인도네시아는 1945년 독립과 함께 공화국으로서의 민주적 헌법을 채택하는 등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갖추었으나 1966년부터 98년까지 32년 동안 수하르토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민중의 정치 참여는 극도로 제한되었다. 분리독립운동이나 인종, 종교에 기반한 갈등은 국가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강제 통제되었으며 부정부패가 사회전반에 만연하였다. 급기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군부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저항이 터져 나오면서 수하르토는 부통령이었던 하비비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32년 만에 다시 맛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수하르토 시절에 3개뿐이던 정당이나 종교, 사회주의 등 다양한 조직과 단체가 40개 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희망이 피어나기도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의 분리독립에 관한 국민투표(1999년)를 앞두고 동티모르 주민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였다. 아체의 저항 세력에 대해서도 조직적 대규모 탄압을 하였으며 다시 서파푸아에서 같은 방식의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수하르토의 퇴임 이후 메가와티, 와히드와 같은 민간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민주화가 진척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로 물든 정부와 수하르토 군부의 전직 인사들은 자본과 결합하여 외국인 투자의 브로커로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문 형식으로 민중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지식과 사상, 종교계를 다원성과 관용의 원칙으로 이끈 지식인이면서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민주적으로 당선된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1999~2001)은 교류단과의 면담에서 군부 출신의 현 대통령 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민주주의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절망적인 평가를 내렸다. 부정부패와 언론탄압 외에도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특정 인종과 종교를 해체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종교적 자유 문제를 넘어 인도네시아의 근본 정신, 즉 다양성과 관용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는 ‘내용상의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와히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을 기리기 위한 와히드 재단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일종의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온건한 무슬림, 종교적 다원주의와 관용, 복합 문화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구호 하에 활동하고 있었다. 교류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부를 챙기는 와히드 전 대통령에게 그가 추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에 대해 한국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

수하르토의 그림자가 여전히 두터운 현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현지 시민사회 연대체인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한 국제NGO포럼(INFID)’ 사무총장은 ‘불처벌(Impunity)’ 문제를 교류단과의 워크숍에서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과거사 청산 경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제정된 과거청산 관련 네 가지 법안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직에 있는 군부

내 주요 인사와 정부기관, 검찰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 경력을 추적하여 불치별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기대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사이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그 절차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국의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민중의 인권증진과 빈곤문제 해결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빌미로 한 자원수탈과 시장점유, 환경파괴,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지의 모니터링 활동은 한계가 있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문제가 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걸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 공적개발원조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감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픈 기억과 새로운 민주적 자치권이**

**동시에 공존하는 아체**

교류단은 자카르타를 방문하기 이전에 아체(Aceh)의 쓰

나미 피해 재건현장과 30년 넘게 지속된 오랜 분쟁의 희생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방문하고 자치정부 수립 이후 아체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부주지사를 비롯해 지역정당과 시민사회, 노동조합과의 면담과 워크숍을 가지면서 교류단은 인도주의적 원조 뿐 만 아니라 평화와 정당문화 정착, 인적자원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류협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

1965년 공산세력을 진압하고 대통령에 오른 수하르토의 강력한 중앙집중화 정책에 따라 아체의 자치는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1년 아체에서 대량의 석유와 각종 자원이 발견되면서 중앙정부의 간섭이 심해지자 1976년 아체분리독립운동(Free Aceh Movement)을 조직하게 되었다. 수하르토 군부는 분리독립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구타, 강간, 고문 등 헤아릴 수 없는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바이다.

지난 2004년 쓰나미의 충격으로 평화협상이 급진전되면서 마침내 헤이그선언을 통해 아체는 자치권을 획득하였다. 현재 아체주는 분리독립세력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슬람 법을 주법으로 삼고 있다. 아체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새로운 민주적 자치권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이중의 현실은 무사마드 나자르 아체주 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잘 전달되었다. 그는 아체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역설하면서, 아체의 자치권이 아직 불완전한 형태로 많은 부분이 자카르타 정부 통제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며, 지난 30여년 동안 분리독립투쟁에 집중한 나머지 민주화나 양질의 정치라는 것은 항상 차후의 과제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아체인들은 민주화라는 개념을 상피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그들의 생활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른 삶을



와히드 재단에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유영표(왼쪽) 사업회 부이사장과 재단 사무총장(오른쪽).



『전태일 평전』 인도네시아어판 출판기념식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독립과 자치를 두고 내분을 겪었기 때문에 그 동안 쌓인 내분과 갈등의 역사를 딛고 어떻게 하나의 아체를 평화적으로 구축할 것인지도 민주적 자치권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었다. 또한 이전 분리독립운동 세력이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화의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강조되었다. 쓰나미가 파괴한 아체주의 환경과 삶의 터전은 국제사회의 원조로 상당부분 복구되고 있거나 언젠가 본래 모습을 되찾겠지만, 오랜 분쟁으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였다.

중앙정부와의 ‘투쟁’에만 집중해왔던 인사들이 이제 새로운 ‘행정’이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혁명정신을 어떻게 ‘행정정신’으로 바꿀 것인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행정의 기본 이데올로기를 제공할 것인가 많은 의문을 던져주었다. 무엇보다도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복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할 것이다.

## 민주화에 대한 국제교류 연대 희망

이번 교류단은 사전협의와 현장에서 워크숍 등 활동을 통해서 INFID와 와히드연구소 그리고 민주주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와 인권 연구센터 (DEMOS)와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인적 교류와 지식정보교류 등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도시빈민, 소외계층의 인권보호와 조직화를 지원하고 있는 ‘도시커뮤니티미션(UCM)’과 노동조합연맹 등 기층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와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었다.

교류단은 이러한 현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한국사회에 폭넓게 확대해 나가면서 다소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보다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교류단은 한국과는 다른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와히드 전대통령이 강조한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자르 아체주 부지사가 역설한 아체의 고유성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 그 위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국제협력은 서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김 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단